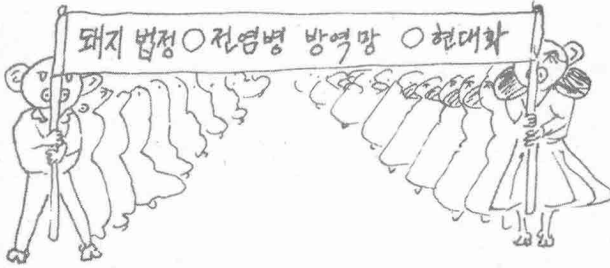


돼지법정전염병 예방대책



설 동 섭
(안양가축위생연구소 소장)

- ◇...1982년 가을에 발생한 미증유의 돼지콜레라와 같은 질병이 양돈농가가 방심하고 있는 사이...◇
- ◇...에 언제다시 재발할지 우려된다. 이러한 돼지법정전염병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근절시키기...◇
- ◇...위해서는 돼지전염병 방역망을 현대화하여야 한다.편집자주...◇

전염병을 장기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감시방역체계를 도입하고 접종증명서가 없이는 돼지를 유통할 수 없는 조치를 강구해야

돼지의 법정전염병에서 대표적인 질병이 돼지콜레라이다. 1947년에 발생한 이후 2~3년 주기로 대발생이 반복되고 있다. 이와 아울러 돈단독, 톡소프라즈마병도 경우에 따라서는 적지않은 피해를 양돈농가에 주고 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돼지 전염성 위장염(TGE)에 감염된 모돈은 폐사되는 일이 별로 없지만 포유초기의 새끼돼지에 설사를 일으켜 폐사시키는 무서운 전염병으로서 제2종 가축전염병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돼지의 법정전염병은 과거에 국가방역으로 예방약을 국립기관인 가축위생연구소에서 대부분 제조해서 행정력으로 전국에 산재해 있는 수의사들을 동원하여 접종함으로써 전염병 예방에 임하였다. 그래서 돼지사육이 농가부업형태를 벗어나지 않았을 때에는 전염병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소위 포위식 예방방법을 실시

함으로서 전염병 발생억제효과를 거둔 바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양돈산업이 점차 확대되고 전업화 및 기업화로 사육규모가 커짐에 따라 국가방역만으로는 도저히 전염병을 예방할 수 없게 되자, 예방약 제조를 민간기업체에 이관하고 예방약접종도 양축가 자신이 하는 자율방역방법으로 전환되면서 국가방역과 민간자율방역의 전환과정에서 틈이 생겨 다시 돼지 전염성 발생건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1982년 가을에는 돼지콜레라가 폭발적으로 대발생하여 우리 양돈업계에 미증유의 큰 손해를 가져온 쓰라린 경험이 아직도 우리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전염병의 대발생이 양돈농가가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언제 다시 재발할지 심히 우려되고 있다. 약간의 손실로 끝나기는 했지만, 지난 2월에 발생한 돼지 전염성 위장염의 경우에

돼지전염병근절기반을 마련키 위해서는 방역망을 현대화하여 예방약
접종정보를 예보해주는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 급선무



는 이미 우리나라 전역이 이 질병바이러스에 오염되어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전염병을 장기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국가감시방역체계를 도입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전염병예방약접종은 양돈농가 자신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되 국가가 제시한 방역프로그램에 따라 예방접종실시를 의무화하고, 이것을 정부가 지방행정기관을 통하여 의무이행여부를 감시확인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예방약 판매업소망을 조직하여 돼지사육농가를 모두 등록시키고, 사육두수에 따라 법정전염병 예방약을 공급하고 이것의 접종여부를 감시하고 확인하므로써 예방에 철저를 기하자는 것이다.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 양돈농가는 벌칙으로서 사육제한을 가할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바람직한 것은 도살장에 출하되는 돼지나, 시장에서 유통되는 돼지는 반드시 예방약

접종증명서가 없이는 매매할수 없도록 하는 조치이다. 실시 초기에는 다소 혼란이 예상되다가 짜 증명서가 발급될 우려가 있겠지만, 국내에서 생산되는 예방약과 수입예방약의 유통을 모두 전산화시켜서 컴퓨터로 추적시키면 결코 가짜증명서를 발급할수가 없을 것이다.

앞으로 돼지 전염병 발생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언젠가는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돼지 전염병 방역망을 현대화해서 전국의 돼지를 표본 채혈해서 각종 전염병에 대한 체내항체를 조사해서 예방약접종 필요시기를 알려주고, 동시에 질병예찰본부에 통보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규모의 양돈농가가 더 발전되면 어느 양돈농가가 어떤 전염병예방약 접종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예보해주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가축위생연구소는 유전공학기법을 이용해서 돼지 콜레라를 위시하여 각종전염병에 대한 진단시약과 체내항체검사시약을 개발하고 있고, 이것이 개발 완료되면 각도 시험소가 그 지역에 있는 돼지농가를 대상으로 돼지전염병발생 여부및 항체검사를 주기적으로(적어도 월 1회이상) 실시하면, 그 결과를 가축위생연구소에 통보해서 분석된 결과에 따라서 중앙에서 매월 질병예찰결과를 전국에 발표하고, 지역별 방역조치사항을 지시하는 체계를 세우는 작업을 현재 진행중이다.

연구가 잘 진행되면 일선 수의사들도 야외에서 돼지 전염병의 진단 및 항체검사를 할 수 있는 간단한 키트도 만들어 볼 계획으로 예비시험을 실시하고 있어 기대되는 바 크다.